서삼석 "농어촌 교통 불평등, 생존 위협 수준"

민주 최고위회의서 실태 고발 "귀농 장벽"

"국정과제 '교통 혁신' 농어촌선 체감안돼"

"面단위 주민 대기 시간 평균 88.5분 달해"

여객선, 대중교통 불구 환승체계구축 전무

민주 광주시당 5·18묘지 참배 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이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최고위원이 5일 농어촌 및 섬 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20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24절기 중 소한(小寒)을 언급하며 "우리 주위에 더 추운 사람들을 돌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교통 혁신'이 농어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 가려는데 버스가 안 온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실태 조사 자료를 인용해 농어촌의 교통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가 인용한 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 중 모든 리(里) 단위 마을에서 하루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체의 4.3%(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郡) 단위로 좁히면 단 2곳 뿐이다.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 목적의 61.7%가 병원 진료 등 필수 생활 업무라는 점이다. 아파도 차가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는 '이동권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다.

배차 간격의 격차는 더욱 심각했다. 농어촌 버스의 평균 배차 간격은 69.3분이었으며, 특히 면(面) 단위 거주 주민은 평균 88.5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 최고위원은 "출근 시간대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서울 지하철과 비교하면 농어촌 주민은 20배 이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러니 이용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45.2점에 그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섬 주민은 국민 아닌가?"

섬 지역의 교통 소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여객선은 명백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4차 대중교통 기본 계획에 따른 환승 체계가 구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서 최고위원은 "섬 주민들은 육지 주민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선사 운영난으로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하는 등 교통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부터 사야 하는 귀농 균형발전 저해"

서 최고위원은 이러한 교통 문제가 정부의 청년 유입 및 귀농·귀촌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들에게 농어촌으로 오라고 하지만 현실은 대중교통이 없어 농기계보다 자가용을 먼저 사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며 "초기 정착 비용의 증가는 결국 귀농을 주저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통 문제는 단순한 이동의 불편함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당국이 실질적인 연계 강화 및 편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도, '남도문화 융성' 국비 1천억 확보

'K-디즈니 인재양성' 등 핵심사업 반영

예술·공연·역사 등 全분야 인프라 구축

전남도가 올해 K-문화 핵심 사업 국비 1천억원을 확보, 도민 문화향유 인프라 확충과 남도 문화 발현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전남도는 문학·예술·공연·전통문화·역사·문화콘텐츠 등 K-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비를 고르게 확보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도 문화가 지속해서 융성할 제도적·구조적 여건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298억원(총 443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29억원(총 185억원),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 조성 2억5천만원(총 300억원),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 건립 2억원 등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기존 14만원에서 올해부터 15만원으로 인상해 경제적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구례 화엄사 구층암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조성해 죽로 야생차 다도 체험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한다. 22개 시·군 306건의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할 방침이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으로 확산한 K-컬처의 세계적 열기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전남 K-디즈니 인재양성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콘텐츠 전문 인력 육성과 글로벌 문화산업 인재 배출 기반을 마련한다.

전남도는 국비 확보를 계기로 문화균형발전 선도,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남도 특화 문화자원 육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핵심 문화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강효석 문화융성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남도 문화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시원 기자

축산물가공품 영양정보 표시제 확대

전남도는 5일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이달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축산물(식품 포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하는 업체다.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9종이다.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면서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원 미만 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양시원 기자

道, 지역사랑상품권 2천500억 발행

도비 50억 선제 지원 할인율 2% ↑

전남도는 5일 "민생경제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경영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50억원의 도비를 선제 투입, 2천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과 시·군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상시 10% 수준의 할인율에 도비 2%를 더해, 연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2%로 상향 운영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무안 등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선제 발행과 할인율 유지 정책을 통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꾸준히 입증했다. 이번 도비 추가 지원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조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연초부터 도비를 신속하게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도민 소비 부담을 덜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중앙정부, 시·군과 협력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1) 꼬마상가 2억7,000
유동로타리 6차선대로변 코너중심상업지 30평
2층건물 매수즉시 사용가능(1층 점포4칸)주차4대
2) 양산동 주거1종 대지110평 시세50%
평당160만원 바로 건축가능 매가1억7,600

3) 중흥동6거리 상업지 193평 단층상가
도로코너 평당900 총가 17억3,700만원
급히 구합니다
토지,건물 투자조건맞으면 바로 계약됩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CMYK